

“귀농어·귀촌,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전남도, 도-농간 문화적 차이 이해·이주 과정 시행착오 최소화 30개 마을·농가 확정...내달 15일부터 3개월간 운영 참가비 무료

전남도는 농어촌에 일정 기간 체류하며 귀농어·귀촌을 체험하는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상반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는 도-농간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도시민이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장기 민박시설을 갖추고 귀농어·귀촌 교육, 현장체험, 주민 교류 등 프로그램 운영 능력이 있는 30개 마을·농가를 확정했다. 상반기는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 숙박 및 농어촌 체험·교육 프로그램 등 참가비용은 무료다. 참가를 바라는 사람은 18일부터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누리집(live.jonnam.go.kr)에 접속해 마을과 숙박할 객실, 기간을 정해 신청할 수 있다. 또 마을·농가 운영자는 체류기간 팀 구성 여부, 청년(만 18~39세 이하), 신청 순서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참가자를 선정하게 된다. 참가자들은 5일에서 최장 60일간 전남의 농어촌에서 머물며 농어촌

체험, 주민만남, 귀농어·귀촌 교육, 선도 귀농농가 견학 등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된다. 체류 기간에 따른 의무점수(1일당 1점)를 이수해야 한다. 전남도는 프로그램 운영 후에 만족도 설문 조사, 전입 여부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유현호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행복한 귀농어·귀촌을 꿈꾸는 분들이 착한 사람들과 풍요로운 농어촌을 품은 전남을 직접 경험해보고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현대차-카드사 수수료 협상 일단 통합 갈등재연 소지 남겨...타 업계 영향은?

모든 카드사가 현대·기아차와 수수료 협상을 매듭지었다.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의 첫 단추를 끼운 셈이다. 현대차는 큰 고객불편 없이 원만히 협상에 성공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현대차가 협상력 우위란 점을 이용해 원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지은 사실상 ‘통합’이란 점에서 언제든 갈등재연 소지를 남겼다.

17일 현대차와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전 카드사와 수수료 협상을 타결했다. 현대차의 계약해지 통보에도 막판까지 수수료 인상분을 고수했던 신한과 삼성·롯데카드가 각각 12, 13일에 타결을 본 것이다.

카드사들은 이번 수수료 협상이 사실상 불만족스럽다. 카드업계는 “계약해지로 인한 고객불편이 계속될까 우려돼 현대차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계약해지 상태가 지속될 경우 고객불편 화살이 카드사를 향할까 우려해 어쩔 수 없이 택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현대차 제안을 수용한 날 카드업계는 노동조합을 주축으로 ‘대형가맹점의 갑질’이라고 반발했다.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전국 사무금융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는 지난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전문금융업법은 대형가맹점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신용카드 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정하는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현대·기아차는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소액 인상했다는 이유만으로 가맹점 해지를 통보한 것은 대형가맹점의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즉 원만한 협상이 아닌 갈등의 ‘통합’이란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대형가맹점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했는지 사후에 확인된다면 처벌하겠지만 협상 전단계에서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요자 중심 중소기업 일관지원 접수

유형별 2개 이상, 최대 5개 분야 지원사업까지 신청가능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재홍)은 기업이 희망하는 여러 사업을 분야별로 별도 신청하는 방식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일괄 신청·평가 하는 방식의 ‘중소기업 일관지원사업’을 오는 2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수요자 중심의 일관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R&D), 정책자금 수출, 스마트공장, 컨설팅 등을 한번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별로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10억원 이상 규모의 자금이 지원된다.

일관지원 사업은 신청 기업 따라 크게 3개 유형으로 △스마트공장 도입기업(1,037억원), △수출 우수기업(462억원), △사람중심 기업(487억원)으로 분류되며 분야당 1개, 기업별 최소 2개 이상 단위사업을 신청 해야 한다.

신청자격으로는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은 전년 대비 종업원수가

감염 없이 유지되거나 증가한 스마트공장 도입 중소기업, △ 수출 우수기업은 직전년도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직접수출 증가율이 10% 이상인 중소기업, △ ‘사람중심기업’은 중소기업부가 지정한 ‘성과 공유기업’, ‘인재유형 중소기업’, ‘준경쟁력 기업인 선정기업’ 중 1개만 해당되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회원가입 → 자가진단 → 사업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오는 3월 22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1337콜센터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홍 청장은 “그간 중소기업은 필요한 사업별로 여러번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제는 일관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 및 시간적 제약 해소를 위한 신속한 중소기업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4주째 오르는 휘발유 가격

4주째 휘발유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주유소에 판매 가격이 적혀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당 9원 오른 1,359.3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경유판매가격은 전주보다 9.3원 오른 1,259.6원으로 집계됐다.

오늘 Lotto 제 850회차 당첨결과 (2019년 3월 16일 추첨)

16 20 24 28 36 39 + 5

순위	당첨개수	1인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등	6	3,377,587.875원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2등	55	61,410,689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보너스 숫자 일치
3등	2,023	1,669,594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4등	101,591	50,000원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5등	1,727,367	5,000원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금 지급기한: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휴일인 경우 약정일임)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